

다리굴 기도굴에서의 선생님의 회개 기도

작성일: 2011. 5. 7. 새벽 3:17

작성자: 장정희

[다리굴 기도굴에서의 21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

뜨겁게 회개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]

하나님 말씀

사랑하는 자야, 기록하라.

다리굴의 인봉을 말하니

이 인봉은 선생의 사랑의 인봉이니라.

진정 선생은 이 다리굴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다

자신의 죄, 가정의 죄, 민족의 죄, 인류의 죄를

자신의 죄처럼 회개한 곳이 바로 다리굴이었다.

진정 그의 회개 기도는 뜨겁고 진실하며 간절하여
나 여호와의 마음을 녹이고 녹였다.

그의 회개가 무엇 때문에

온전한 회개 기도가 되었는지 아느냐?

행함의 회개였기 때문이다.

눈물과 진실의 회개였고,

그의 입장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

나 여호와와 삼위의 입장에서

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

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한

진정 삼위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

속 시원하게 사랑의 한을 풀어 주는

회개였기 때문이다.

그리하여 그의 진실한 회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

의의 역사, 생명의 역사를 낳았으니

그것이 바로 섭리사의 탄생이다.

이는 섭리사를 탄생시킬 수 있게 한

창조목적과 타락의 인봉을 떼었기 때문이다.

그가 이 창조목적과 타락의 인봉을 떼지 않았다면

신부의 창조 목적을 이를 섭리사가

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.

그 증인과 장본인이 선생 자신이니

진실로 이 다리굴 기도굴에서의 그의 회개 기도는

진정한 신부의 탄생을 알리는 성약역사,
천국 재림역사를 잉태케 한 근원의 기도였다.

사랑들아,

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여라.

진정 회개하여라.

성령에게 간구하고 부탁하여

이 재림의 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

회개의 근본을 깨닫고 회개하라.

너희들을 사랑하여 나 여호와가 한 마디 이르면,

지금 이 시대 모든 심판의 잣대는

선생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니

너희는 이를 깨닫고

진정 회개의 근원을 회개하길 원한다.

섭리사 모두에게 말한다.

회개하여 의인 되는 길만이

이 재림의 환난에서 영, 혼, 육, 마음이 살아남는
길이니

너희는 깨어 기도하라.

깨어 회개하라.

꼭 성령을 뜨겁게 받고 회개하라.

부흥강사 통해 내려 주는 성령을 꼭 받고 회개하라.

부흥강사가 선생 대신하여 내려 주는

그 귀한 영의 생명인 성령을 받고 회개하라.

회개의 대역사 일으켜라.

이것이 너희들이 다리굴 기도굴에서 기도한 응답이
다.

너희가 이곳에서 행하였기에

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 여호와의 은혜니라.

귀 있는 자는 깨달아라.

사랑한다.

* 예수님 말씀 *

다리굴 기도굴에서의 선생의 회개 기도는

나 예수가 사탄과 싸워 승리한

광야에서의 40일 기도와 같다.

또한 십자가 위에서

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니

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

사랑의 기도와 같다.

지금도 선생은 저 고통 속에서도

그 기도를 하고 있다.

* 선생님 말씀 *

나도 한 마디 하고 갈게.
그래도 나는 행복했어.
다리굴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행복했다.
중국 그곳에서 기도할 때도 행복했고
지금 이곳에서도 행복하다.
왜?
나의 기도로 너희들과 생명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.
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시
니까.
외롭고 고통스럽게 기도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.
하나님께서 100% 응답해 주시니까.
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준
다고
약속하셨으니까.
그래서 그 약속 믿고 나는 기도한다.

다리굴 기도굴에서도
중국 그곳에서도
지금 이곳에서도 기도한다.
그래서 나의 기도는 영원한 기도가 되어
사탄과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가 된다.
행하는 기도,
실천하는 기도니까
너희도 이런 내 맘 알아
행하는 기도,
실천하는 기도하길 바란다.

행하는 기도,
실천하는 기도가 뭐냐구?
기도하고 바로 실천하면 실천하는 기도다.
기도하고 바로 행하면 행하는 기도다.
쉽지? 꼭 기도해야 된다.
그동안 기도하느라 정말 수고했어.
기도할 때 또 만나.
내 영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과 함께 가니
까.
안녕!
사랑해!

* 성령님 말씀 *

회개하라.
정결한 신부를 위해 내 아들 예수가 올 것이니
아주 속히 올 것이니
이때, 곧 성령의 은혜의 때에
너희들이 많이 깨끗하게 되길 바라노라.
때가 급속하며
시간이 거의 없음을 깨달아라.